

<<월드센터 신년 초대석>>

- 2006, 희망을 듣는다 -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김민웅의 월드센터>>에서는

신년 특집으로 각 분야의 명사들을 모시고,

2006년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여성재단, 한국 환경, 사회정책 연구소

이사장으로 일하며 정부가 해내지 못하는 부분에

힘을 더하며, 진정 여성의 힘을 보여주고 계신 박영숙

한국여성 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정책의 현황

Q1.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영숙 이사장님께서서는 언제나 현역이신 거 같습니다.

2006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Q2.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으로 계신데요, 한국 여성재단,

모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떤 재단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Q3. 쉽게 이야기해서요. 공익활동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계신데요.

기부문화가 사실 자리 잡기 시작한지 얼마 안돼, 힘든 부분도

많았을 거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Q3-1. 한국여성재단이 설립 된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국민들 - 여성들 25%이

이거
동예영

이들은?

국민들의 기부가 있었을 텐데요.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독립시대를 기리고 같이 했고, 해방과 함께하고 2043 6월

Q3-2. 한국여성재단에서 모은 기부금은 어디에 사용 되는가?

여성관련 여러 가지 공로 제공을 통해 여성 관련
유지보수로 여성, 교육, 의료, 장학금 등

Q3-3. 박영숙 이사장님께서 어떤 이유에서 기부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여성취업, 연구, 양육, 의료, 교육, 문화, 경제, 정치
국민의 요구 다양 시·민·회·영·정·종로 - 취직, 창업, 교육, 복지

여성들이
재능, 시간, 노력, 자원

Q4. 복지, 환경, 인권 등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많은 부분을 시민 사회단체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50여년 넘게, 지금까지도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역할이 많이 바뀌고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가 늘고 있음에
이것이 바로 시민의 힘

Q5. 이사장님께서 최근 미래포럼 이사장, 희망포럼 공동의장을

맡으며 여성 대표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성이기

때문에 힘든 점은 없는가?
성차별, 여성차별, 여성에 대한 편견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
이것이 바로 시민의 힘

Q6. 또, 박영숙 이사장님께서 제 13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 여성의원들에게

힘을 주자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정계진출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가?
정치적 참여의 필요성
인구의 50% 여성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

문제는
30%-50% 이하

Q6-1. 제 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인 차지하는 비율이 13%, 그나마

역대 최대 규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겨우 65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요인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참여의 필요성
인구의 50% 여성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

Q7. 지난해 6월부터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만큼 여성의 입장에서 가족제도라든가, 또, 남녀 차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성 정책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상황인가?

김민웅의 월드센터 신년 특집으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쟁점을 통해 본 과제

Q8. 지난해, 드디어 민법 개정을 통해 대표적인 남녀차별제도로 비판 받아온 호주제 관련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005년도의 가장 큰 여성계의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호주제 폐지 본 여성의 역할, 어떻게 봐야 할까요?

Q9.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저 출산으로 고령화 사회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과 함께 사회적인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Q9-1. 우리나라 영유아의 보육 지원과 함께, 개발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Q9-2. 또 하나가,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졌습디만, 여전히 한쪽에서는 고용 안정성에 있어서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여성들의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Q10. 이제네요. 여성들의 사회적인 위치도 많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쪽에서는 여전히 평등을 외치고 있기도 한데요.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선 어떤 것이 먼저 수반되어야 할까요?

Q11. 우리나라도 많은 여성 단체가 생겨나면서, 외국의 여성 인권과
또, 우리나라 여성의 정책에 대해 교류가 활발해 진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의 3대 정책 중 하나가

-----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

2006년의 계획

신체적 -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재활시설

----- *경제적 - 여성 - model* -----

Q12. 2006년,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 인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꼭 이것만큼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경제적이지 여성들이 더욱 진출할 수 있는

Q13. 한국여성재단 이사장님을 하시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기금보급 새롭고 다양*

Q14. 언제나 현역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데,

2006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여성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기금유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네, 지금까지 한국여성재단의 박영숙 이사장님을 모시고 2006년,
여성이 나아가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006년 1월 3일, 화요일, 김민웅의 월드센터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